



11월 중국 소비자물가, 생산자물가 상승률 본격 하락 전망

왕양비 연구원

- 11월 중국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(전년동기대비)은 4.2%로 2010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, 특히 동 상승률은 10월보다 1.3%p 하락한 것으로 올해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함.
 - 금년 7월 6.5%로 37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6.2%로 둔화되었고, 이후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(8월 0.3%p, 9월 0.1%p, 10월 0.6%p)가운데, 11월 하락폭이 1.3%p에 달하는 등 하락세가 본격화됨.
 -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.2%까지 하락한 것은 시장 내 25개 경제평가기관의 평균 예측치인 4.4%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물가안정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빠름.
 - 10월에 비해 3.1%p 하락한 11월 식품가격 상승률(8.8%)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, 비식품가격 상승률도 2.2%로 10월보다 0.5%p 하락했음.
- 또한, 11월 생산자물가(PPI) 상승률이 2.7%로 23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.
 - 1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2.3%p 하락했는데, 동 하락폭은 2.5%p 하락한 2008년 12월 이후 35개월간의 최대 하락폭임.
 - 또한,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0년 11월 5.1%에 달한 후 2011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2년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%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중국 통화당국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긴축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으나, 금리 인하보다 기준율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- 12월 5일 중국 중앙은행이 3년 만에 기준율을 0.5%p 인하하여 통화정책의 중심을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제성장으로 전환했으며, 2012년 3~5회의 기준율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
(재신망, WSJ, 인민은행, 12/09 등)